

칭기즈칸의 榮華를 간직한 자유로운 영혼들의 안식처

한국산학협동연구원 역사문화탐방

바람과 초원의 제국 '몽골' <상>



칭기즈칸 후예들이 만든 푸른 초원의 나라 몽골. 역사상 40여개 나라를 멸망시켰다고 기록된 몽골! 역사가 없을 것 같은 몽골에도 지난 수백년 동안 유목민이 남긴 수많은 문화유산들이 존재하고 있다.

지난 3일 (사)한국산학협동연구원 회원 37명과 함께 5박6일 일정으로 몽골을 다녀왔다. 몽골 여행을 2회에 걸쳐 게재한다.

▶ 황량한 산야(山野)의 첫 인상!

우리나라 버스터미널만도 못한 울란바타르 공항에서 입국수속을 마치고 버스에 올라 시내로 향했다. 수목이 없는 산야의 들판은 황량하기 그지없다. 나무가 자라지 못하는 이곳에 유엔이 사막화 방지를 가꾸어 놓은 나무들이 이제 제법 성장해 오아시스를 연출하고 있다. 한국의 여러 단체에서 심어 놓은 묘목에 가까운 나무들도 군데군데 보였다. 죽은 묘목들 사이에 끼여 있는 꽃말이 울췌넌스럽다. 그래도 '이곳이 몽골에서는 비옥한 편'이라는 안내원의 설명에 어이가 없다. 3개의 큰 하천과 지류인 10여개의 소하천이 이곳으로 흘러들어 풍부한 용수와 비옥한 토질을 가꾸어 낸 천혜의 땅 '울란바타르'라 한다.

울란바타르 시내로 가는 북쪽 조그마한 언덕 같이 보이는 산(보갈한산)이 해발 2천256m다. 몽골고원이 정말 높은 곳이라는 의미다. 우리가 서 있는 지점이 1천351m였다.

▶ 넓은 권위주의가 맨 초라한 시가지!

약 100만명이 산다는 울란바타르는 대도시치고는 초라하기 그지없다. 시내에는 백화점도 있고, 광장도 있고, 건물들도 즐지어 있는데, 국민소득 500달러도 채 안된 빈국으로 구매력이 낮아 도시에 화려함이라고 없다.

볼 품 없이 늘어선 주택, 권위주의적 색채가 강하게 위압감을 주는 관공서 건물들, 그리고 혁명가의 이름을 딴 넓은 도심중앙의 수흐바타르 광장. 아름다운 마을 이름도 구역 명칭도 없고, 번호로만 식별되고 있는 유목민의 특성이 배인 도시. 그래도 한가지 특색은 겔 모양의 지붕과 밝은 색(겔과 같은 흰색)을 한 현대식 건물이 색다른 도시모습을 심어준다.

▶ 사람도 차도 풍습도 영락없이 한국(?)

한국에서 철 지난 구형 차들이 이곳에 다 모였다고 설명하는 안내원 말이 실감난다. 일본인이 한국차를 싸게 수집해 비싸게



몽골의 대표적인 중심가이자 유일한 광장인 수흐바타르 광장에서 단체 사진. 광장 양쪽으로 칭기즈칸과 수흐바타르 동상을 세워놓고 기리고 있다.

팔고 있다는 것이다.

도로에는 국산 액셀, 액센트, 엘란트라 등이 여전히 운행되고 있다. 도색되지 않은 버스의 한글 간판이 어색하다. 어쩌다 코란도 소나타를 타는 중산층들이 뿔내고 다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시시하기만 하다. 몇 년 전 우리나라 신차로에 달리던 외국 고물자동차가 떠오른다.

그런데 만나는 사람마다 낯익은 김씨 같은 이씨 같은 얼굴들이다. 말도 풍습도 비슷한 것이 많다. 마늘, 물, 서낭당이 영락없이 우리의 그것이다. 어쩐지 친근한 마음이 자꾸 들었다.

▶ 약소민족의 비애가 서린 역사박물관

유물이 적고 규모도 작다. 실물 대신 그림이 많고, 복원이 어려워 모형도 많다. 본 바탕이 한 곳에 머물지 않고 떠돌던 유목민이라 건축이나 도구문화 등 자랑거리가 없다. 단지 칭기즈칸 관련 유물이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뽐내고 있을 뿐이다.

몇 안 되는 진열된 문화에서 중국과 소련에 수탈당한 약소민족의 비애가 서려 있음을 보고, 우리의 역사를 생각하게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말(馬) 도구'와 게르 재료 등 볼 품 없는 것들이나 내세워 나름대로 상품화하고 체험관광화 하려는 몸부림에서 또 다른 감명을 주었다.

▶ 신기루처럼 존재하는 티베트 불교

신기루처럼 존재하는 티베트불교가 거기 있었다. 한 영혼으로 여러 번 육체만 바뀌 태어나는 사람들. 스승과 제자 사이의 비밀스러운 교육을 통해 불법을 계승하는 일종의 밀교, 신비의 안개 속에 가려져 사막의 정적 속에 들어 있는 사원과 명상에 잠겨있는 라마승, 13세기 티베트를 점령한 쿠빌라이가 동자승



몽골 독립의 핵심 역할을 한 수흐바타르 동상.

파스파를 존경해 왕실보호 속에 전파되었고 금세기까지 승려인 "복두왕제"가 등극했던 나라, 현재 90%가 티베트불교 신자인 나라이다.

법당 안에 들어서자, 좁은 한 칸에 모셔진 마두명왕신(생사의 바다를 건너며 중생의 무명을 없애고 마왕의 항복을 받아내는 법력을 지니고 있다는 신)이 눈앞에 들어온다. 좁은 문틈으로 머리를 들어 밀어 친견하고 1천원 지폐를 불전함에 놓자 동행한 스님이 액막이로 코에 검명을 묻혀준다.

무릎에 괴를 흘리면서까지 오체투지(五體投地)로 절을 하고, 수십 개의 마니륜(기도동)을 손으로 돌리며 "육자진언(육마니발니후)"을 외우면서, 순례로를 따라 도는 의식을 통해 업(카르마)을 정화시켜, 내생에는 깨끗한 몸으로 태어나고자 하는 소망을 빌어댄다(육마니발니후와 함께 마니륜을 한번 돌리면 통 안에 있는 경전을 한번 독송하는 것과 같다고 해서 모든 사찰에는 마니륜이 있고, 아예 휴대용을 지닌 신자도 있다).

관음보살 화신 마두명왕신(馬頭明王神)을 주로 숭배하며,

울란바타르는...

울란바타르 도시역사는 할하 종족 영주 고포도르지가 5살 된 아들 잔바자르를 몽골불교의 수장으로 앉힌 1639년부터 시작된다고 한다.

본래 이름은 우르거. 우르거는 이리저리 장소를 옮기면서 노망이후후래, 다후래, 복딘후래, 니슬렐후래 등 21번이나 이름이 바뀌면서, 그로부터 140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이곳(현위치)에 옮겨왔고, 인민혁명으로 중국의 지배를 벗어나 몽골인민 공화국을 선포한 1924년 전쟁 영웅 수흐바타르를 기려 '붉은 영웅이란 뜻'의 울란바타르가 되었다고 한다.

마니륜을 돌리면서 "육마니발니후" 암송으로 현생의 업(業)을 승화시켜 나가는 이들, 그러나 사회주의를 겪으면서 참화를 입었고 쇠락의 아픔을 겪었다.

/글=문병채(주) 국토정보기술단장·전남대 지리교육과 겸임교수 /사진=이광호 광주매일신문 시민기자

www.가족회관.kr

전통 남도 한정식의 명가! 가족회관

남도 전통 한정식 10년전 가격으로 고객님의 모십니다.

여름특선 녹차 굴비정식, 친환경삼계탕, 약오리전골/꼬리탕(찜)
점심특선 한정식(1인 18,000원, 3인 이상 15,000원)

▶ 결혼피로연, 각종모임, 상견례 전문, 맞춤형 가격 주문가능. ▶ 가족회관: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동 159-15 ▶ 예약전화:062)222-3845 (가족회관 건너편 대형주차장 완비)

"영화의 전당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예매: www.megabox.co.kr
 ▶ ARS: 1544-0070

*업그레이드 쿠폰이벤트(주말까지 광영) * 2,000원 할인(총2인)~2,000원 할인(총2인)~영화티켓무료!!
 1명비상 동반 4인까지 2,000원 할인

1관	혹성탈출:반격의 서막	12세
2관	혹성탈출:반격의 서막-3D	12세
3관	신의 한 수/소녀괴담	전체관람가
4관	혹성탈출:반격의 서막	12세
5관	더 시그널	12세
6관	혹성탈출:반격의 서막	12세
7관	신의 한 수	전체관람가
8관	트랜스포머:사라진 시대/혹성탈출:반격의 서막	12세
9관	좋은 친구들/트랜스포머:사라진 시대	전체관람가
10관	트랜스포머:사라진 시대/더 시그널/소녀괴담/좋은 친구들	12세/12세/전체관람가

메가박스콜롬버스시네마상무

업그레이드 쿠폰이벤트(주말까지 광영) * 2,000원 할인(총2인)~2,000원 할인(총2인)~영화티켓무료!!
 *1명비상 동반 4인까지 2,000원 할인

1관	좋은 친구들	전체관람가
2관	트랜스포머:사라진 시대/신의 한 수	12세
3관	신의 한 수	전체관람가
4관	혹성탈출:반격의 서막-3D/좋은 친구들	12세
5관	더 시그널	12세
6관	혹성탈출:반격의 서막-디지털	12세
7관	신의 한 수	전체관람가
8관	트랜스포머:사라진 시대	12세
9관	소녀괴담	15세
10관	혹성탈출:반격의 서막-디지털	12세

메가박스콜롬버스시네마하남

"전 좌석 가족시트로 교체 고객만족을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메가박스전대